

미국의 후계농업인력 육성체계와 4-H센터의 역할

오해섭* · 윤준상** · 최창욱***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 한국4-H본부

Upbringing System for the Future Farmers and the Roles of 4-H Center in the U. S. A.

Hae Sub Oh* · Jun Sang Yoon** · Chang Wook Choi***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orea 4-H Federation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upbringing system for the future farmers of the 4-H Clubs, future farmers organization and the Center for 4-H in the USA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4-H programs in Korea. To train future leaders in agricultural and agri-business areas leaders in the United States felt the need to create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4-H Club, Future Farmers of America (FFA), Young Farmer Association (YFA), and cooperate each other. The members in future farmers' groups benefit from opportunities and involvement of farming and agri-related activities and contribute to improve their communities.

One of them, the 4-H Club remains strong in the country covering young people as members and adult as volunteer leaders. Youth in 4-H learn by doing, and members find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4-H members contribute to their family, community, and country in meaningful ways to make a difference.

The Center for 4-H has provided a range of challenging opportunities around the arts, sciences, environment, technology, business, animals, foods, and health while always stressing leadership and citizenship for 4-H members. The Center has been supporting research, teaching, and outreach in community based non-formal youth development education. The Center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youth development opportunities including foster resiliency, promote safe and healthy behaviors, and support youth in communities in various ways.

Key Words : Upbringing system, Future Farmer, 4-H Club, Center for 4-H.

I. 서 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육성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산업주기 및 교역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다. 1960년대 농업의 국제환경은 세계적인 농산물 과잉기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잉여농산물 처리 및 교역자유화가 대두되었으며, 그 당시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달려온 우리나라

에서도 미국의 농산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초기에는 잉여농산물 원조 형태로 시작된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한국의 산업화 단계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 1970년대는 1972년과 1973년의 대홍작으로 제 2차 세계농산물 공급 부족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공업화 위주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침하되기 시작하여 경지면적의 감소와 함께 농촌

노동력의 급속한 도시 이동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또 다시 세계적인 농산물의 과잉기로 우루과이라운드가 대두되었으며, 우리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개인소득의 증가, 중산층의 확대, 도·농간의 소득격차심화, 그리고 육류를 포함한 식품 소비양식의 서구화 경향은 직접적인 소비를 위한 곡물 위주의 수입에서 보다 우회적인 형태를 통한 미국의 농산물 소비로 전환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수입 사료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식품 수입과 각종 패스트푸드 회사들의 국내 진출을 계기로 어린이와 젊은 층을 필두로 식생활문화를 변화시키는 양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UR타결과 함께 새로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교역자유화 형태는 후진국의 식량부족과 선진국의 잉여농산물 처리문제로 양극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과 정보통신 산업과 더불어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1세기 국내 농업환경은 소비자 중심사회,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경쟁력심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고조, 인구의 노령화 등의 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의 농업과 농촌, 나아가 농업인력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접근으로, 우선 농업관련 산업 및 정책분야에서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농업구조와 농업인력 육성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4H 육성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4H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육성정책과 지원사업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미국의 농업인력육성 조직 및 농업교육제도

1. 협동지도사업조직

미국의 농업행정조직은 연방정부의 농무부가 중심이 된다. 농무부는 1860년대에 설립되었으

며, 장관 및 차관 아래 6명의 부차관과 3명의 차관보를 두고 있다.

이중 농업연구, 지도사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기구는 연구·교육·경제부이며, 부내에는 농업연구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협동 연구교육 지도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경제연구국(Economic Research Service), 농업통계국(National Agricultural Serv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무부는 지역에 따라 주 및 카운티 단위에 연방농업정책의 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 및 카운티 단위에 연방농업정책의 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도 대부분 주의 농업정책 수행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농무부를 두고 있다.

미국 지도사업의 4가지 기본이 되는 철학적 바탕은 1)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가장 존엄한 존재이며, 2) 가정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고, 3) 가족은 인간집단 중에서 가장 먼저 교육이 행해지는 집단이며, 4) 모든 인류문명은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사업은 인간평등에 대한 강한 신념, 변화와 진보에 대한 가능성, 과학에 대한 신뢰, 교육의 효과 등 서구 문명주의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철학적 믿음은 Smith-Lever 법안에 반영되었고, 이후 미국 지도사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도사업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평가되는 것도 인본주의 철학적 바탕에서 유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도사업이 미국 사회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철학적 바탕과 정부 주도, 그리고 대학과 각급 단체들간에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일례로 지도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중의 약 80%를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군의 경우 전체 예산의 40%를 지도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지도사업을 국가의 중추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농촌지도사업에 있어 인적교류가 활

발하며, 연구자, 지도요원 그리고 대학교수가 확연히 구분되기보다는 단지 기능수행상의 차이로 간주됨으로써 현장감 있는 연구, 지도와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에서 연구와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실행, 평가를 하며, 일선지도요원들은 대학과 농민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농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촌생활 수준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를 쉽게 영농현장이나 농촌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행정적인 성격보다는 교육적 특성과 민주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농촌지도기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농업연구와 지도는 연방정부의 다양한 협력, 지원과 함께 수행된다 (Smith-Lever Act of 1914). 공공적인 농업연구는 미농무성 농업연구 서비스 (USDA's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경제연구 서비스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협동연구, 교육, 지도 서비스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 국립농업통계 서비스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각주의 농업시험장 (State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s (SAES) 각 주에 있는 74개 랜드그란트주립대학 시스템 (Land-Grant University System) 속에서 운영된다.

협동연구교육지도국 산하에는 동식물 생산, 보호, 가공과(Plant & Animal Production & Processing), 자연자원 및 환경과(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농촌 경제 및 사회개발과(Rural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가정 4-H 및 영양과(Family, 4-H & Nutrition), 산학협동과(Partnership), 연구자금 및 심사관리과(competitive Research Grants & Awards Management), 과학 및 교육 자원개발과(Science 4 Education Resources Developmen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원격교육과(Communication Technology & Distance Edu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지도사업체계를 협동지도사업 체계

(The Cooperative Extension System)라고 불리워 지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하나는 확장적인 교육시스템 (Educational Outreach System)인데 그 특징은 공공적인 자금지원이면서 비형식교육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협동연결망 체계 (Cooperative Network)이다. 이 협동연결망 체계는 미농무성, 랜드그란트 주립대학, 그리고 카운티가 하나의 연결망 속에서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다.

군단위에서 직접 활동하는 농촌지도사는 9,600여명 이상이고, 59개소의 시험장에도 9,500여명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3백만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학교 농업교육제도

미국의 중·고교과정 학제는 K-12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은 미국의 7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12학년에 해당되며, Middle School (6~8학년), Intermediate(7~8학년), Junior High School(7~9학년), Senior High School(10~12학년), Four Year High School(9~12학년)으로 구분된다.

농업교육은 고등학교, 지역사회대학, 4년제 종합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학교 농업교육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을 개설하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을 모두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합중등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등학교 농업교육의 목표는 일반 교육목표, 농업교육 일반목표, 농업직업 교육목표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개별학습, 집단학습, 그리고 교실학습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방법상의 특징은 문제해결법(problem solving methods)에 기초를 두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간의 활발한 의사교환과 실습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제해

결법의 일반적인 절차는 ① 학습목표 설정, ② 학습문제 선정 및 규정, ③ 잠정적인 해결방안 결정, ④ 교사의 지도와 안내 아래 활발한 토의 및 실증연구, ⑤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확정 등의 과정을 밟는다. 문제해결법은 영농과제실습법, 영농학생회와 더불어 미국교육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대체로 단과대학(College)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교과 과정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4년 간의 학부과정을 마치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학교에 따라 학부과정만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영학, 교육학, 법학, 의학 등 몇 개의 대학원 과정을 갖고 있는 곳도 있다. 종합대학(University)은 몇 개의 학부 과정과 의학, 약학, 경영학, 법학 등의 대학원, 전문 학교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주마다 주립대학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 외 많은 사립대학들이 있다. 주립대학은 19세기 농업이나 공업교육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토지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주립대학은 모든 주에 분포되어 있다. 사립대학은 1636년에 설립된 Harvard 대학교가 그 효시이며 주로 종교 재단이나 단체 혹은 개인이 직접 설립한 것이다. 종합대학에서 학부과정은 4년제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대학원은 대체로 대학에 속해 있지만 독립된 경우도 있으며, 과정 이수 후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III. 미국의 대표적인 농촌후계인력 육성단체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학교중심 교육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의 학교교육이 농촌사회와 농촌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변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 순간에 수용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학교 수업시간 및 방과 후 과

외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그들의 진보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교육사상을 실천하였다. 다양한 학생 클럽을 조직하여 집단생활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각종 활동과 회의 운영 등 민주주의교육도 병행하였으며, 각 분야별 과제활동으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천적인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학습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시하는 활동도 전개하게 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생활의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학교의 역할이 증가되는 가운데 1914년 Smith-Lever Act가 통과되어 주립농과대학이 제도적으로 농촌청소년지도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농촌학교의 학생클럽 중에서 농촌생활이나 농업경영과 관련된 클럽활동의 지도는 주립 농과대학의 농촌지도사업으로 이양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는 미국의 4H클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농업관계 법안의 의회통과와 아울러 스미스·레버 법안은 4H운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의회는 공립학교에 실업계 농업과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스미스·휴즈 연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1917년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농촌청소년교육운동으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게 되었으며, 이 시기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등과 함께 "Boys' and Girls' club", "Agricultural Clubs", "Home Economics Clubs", "Corn Club", "Tomato Clubs", "Cotton Clubs", "Canning Clubs" 등과 같은 다양한 농촌청소년클럽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 4-H 클럽

미국 4-H의 연령은 5세에서 19세 사이의 해당되며, 약 550만 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4-H 멤버의 15%는 농장(farm)에서 살고 있으며, 1/3 이상이 인구 10,000 이하의 작은 도시(small town)에 거주한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대도시, 도시외곽지역, 혹은 시내에 거

주하며, 약 600,000명의 10대와 성인 자원봉사자가 4-H 프로그램과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 4-H활동의 핵심은 “4-H Youth Development”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특성, 즉 인지적 발달(cognitive development), 사회성 발달(social development), 도덕성 발달(moral development), 신체 발달(physical development)에 근거하여 건강 및 육체적인 능력, 개인적 및 사회적인 능력, 인지적 및 창조적 능력, 직업적 능력, 국제 이해 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4-H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수질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환경보호, 농업문제, 가정경제, 건강관리, 스포츠, 그리고 지역사회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농촌지역의 4-H회원들은 주로 가축, 작물, 양계, 산림자원, 마케팅, 그리고 농업기계 조작에 대한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영농방법에 대한 실험 및 실습 등에 참가한다. 또한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도시 혹은 도시 외곽지역 회원들은 지역사회개발, 대화기술, 정원관리, 사진촬영, 대중연설, 목공, 그리고 개인적인 재능개발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다소 연령이 높은 회원들은 직업훈련, 금전관리, 그리고 소비자 교육 등의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4-H 클럽활동의 접근유형은 회원들의 관심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Community 4-H Clubs, Project Clubs, Special Interest Groups, 4-H EFNEP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elevision Teaching, Special Activities, 등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영농후계인력 육성사업에서 4-H클럽활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군(County)단위 4-H조직은 각 단위에 속해 있는 4-H클럽을 지원하며 자원지도자, 4-H회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이 지도요원과 함께 4-H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군단위 행사로는 캠핑, 전시회, 품평회, 그리고 현장견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밀접하게 진행된다.

주(state)단위 4-H프로그램은 주립대학에 상주하는 주 협동지도요원은 군단위 요원에 대한 훈련 및 평가, 출판물 및 다양한 학습자료 제공, 회의주관, 주단위 활동 및 행사를 계획하고 지원한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주단위 전시회(fair)에서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포함하여 많은 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와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는 지역행사이다. 이 행사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및 홍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에 있어 4-H클럽회원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전국단위 4-H프로그램은 미농무성의 연방지도요원들이 주단위 요원들에게 4-H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에 대한 조언과 전국 4-H클럽 후원회 및 전국4-H서비스 위원회와 같이 일한다.

2. 영농학생회(FFA)

1917년 미국은 새로운 직업교육법(Smith-Huges Vocational Education Act)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었던 미국 교육의 전통체제가 산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을 연방정부가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직업교육법 제정 수년 후에 각 지역의 농업과정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Agricultural Club”을 조직하였다. 이 같은 조직들이 서로 연계와 친선을 유지하면서 1928년까지 많은 주단위 Young Farmers 혹은 Future Farmers 등으로 불리는 단체가 만들어 졌다. 그 중에서도 버지니아에서 조직된 “Future Farmers of Virginia”가 가장 체계적인 이념과 목적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본 모델로 삼아 1928년 여름 연방정부의 직업교육국은 회칙 목적, 의식방법 등을 공식적인 Future Farmers of America(FFA)를 출범하였다.

FFA의 목적은 지도력(Agricultural leadership), 협동심(Cooperation), 시민의식(Citizenship), 그리고 애국심(patriotism)의 함양으로 요약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회칙에 명시되어 있다.

- ① 유능하고 적극적인 농촌/농업지도자 양성한다.
- ② 농촌생활에 애착을 갖게 하고 이를 함양한다.
- ③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강화시킨다.
- ④ 회원의 현명한 직업선택 과정을 돕는다.
- ⑤ 회원의 영농계획을 발전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⑥ 회원의 주택과 생활환경을 개선시킨다.
- ⑦ 농업 및 농촌개선에 관련된 가치있는 일에 참가한다.
- ⑧ 회원의 인격도야를 통하여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애국심을 함양시킨다.
- ⑨ 공동으로 하는 일에 노력하도록 한다.
- ⑩ 절약을 권장하고 실천하게 한다.
- ⑪ 학업 향상을 장려한다.
- ⑫ 농촌의 건전한 오락 및 취미생활을 발전시키고 장려한다.

FFA의 최상의 조직은 전국단위이고, 이 전국 조직에 의해 입회가 승인된 주협회(state association)로 조직되며, 주협회는 지역단체(local chapter)로 조직되고 지역단체는 입회를 허가받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지역단체는 공립고등학교의 직업농업과정에 설치된 현역단체이며, 연방정부 교육청에 의해 승인되고 주의 직업교육 계획에 의한 대학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주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3. 청년영농회(Young Farmer Association)

청년영농회는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기 시작한 청년들의 교육적 조직체이다. 청년영농회는 회원들 간에 서로의 흥미, 관심, 그리고 영농에 대한 비슷한 태도에 근거하여 농업교사 혹은 지역 농촌지도사들의 주도 하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조직이다. 또한 청년영농조직은 미래 영농인단체(FFA)와 성인 영농인 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교량역할을 하면

서 그들에게 적절한 영농지력이나 경영 참여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경영능력 훈련 등을 전개한다.

청년영농회의 목적은 성공적인 영농정책, 행복한 가정유지, 협동적인 노력, 지역사회봉사, 지도력, 레크레이션 등을 추구하고 있다. 청년영농회의 조직은 각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징적인 점은 조직의 필요와 요구가 회원들의 공통관심사를 바탕으로 도출됨으로 인하여 조직의 독창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에는 주단위 청년영농회(state young farmer association)와 둘 이상의 단위를 지닌 지역청년영농회(local chapter)가 있으며, 조직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운영상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들의 활동은 크게 경제활동, 지역사회개선활동, 지도력배양, 그리고 사교적인 레크레이션활동 등이다.

최근에는 지역 청년영농회 조직이 미 교육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의 후원아래 조직된 전국단위 청년농업인 교육단체(National Young Farmer Educational Association)가 결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의 개인능력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농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훈련,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의 이사회는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미래위원회 의장, 주지사, 전국직업교육교사협의회 대표, 농업교사협의회 대표, 청년영농기업인대표, 농업교사감독기관전국연합회 대표, 농업지도자클럽 대표, 지역의 대통령자문위원회 대표, 교육부 대표 등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조직을 운영한다. 조직의 위원장은 일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문위원회와 재원확보위원회를 두고 있다. 단체의 성장을 돕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위원회와는 일 년에 2회씩 회합을 갖는다. 특히 영농지도자클럽과 청년기업인위원회는 주로 리더십 훈련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선도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미국농업인(The new American farmer)과 농업지도자클럽(Ag Leaders Club)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미래 농업인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IV.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개발 프로그램과 4-H센터의 역할

미국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개발 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들이 자발적인 청소년단체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전통은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들은 헌신적인 성인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이고 기능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가치, 지식, 기술, 리더십 개발, 생활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4-H청소년개발센터(The Center for 4-H Youth Development) 운영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이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소년 서비스기관들과 많은 다른 사회 봉사기관들이 마약 남용, 10대 임신, 그리고 학교 중도탈락과 같은 문제들과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영역별로 예방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1990년대는 다수의 국가기관에 의해 주도된 실천자들이 새로운 그리고 자산에 근거한(asset-based) 청소년 개발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청소년 개발의 접근방식에 대하여 지지자들은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개발을 위하여 거의 지원과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요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폭 넓은 내용과 장소 등이 고려되었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특별활동, 스포츠, 그리고 학습 부진 특별지도 등의 많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일부 학교들의 지역사회 교육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곳도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점차 지역사회

청소년개발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H 청소년개발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개발사업 및 교육의 지속과 개선을 위하여 실천적인 프로그램 제공, 응용 연구, 그리고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곳은 비형식적 혹은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4-H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사업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형식교육과는 대조적으로 비형식교육으로 불린다(LaBelle, 1981). 사회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인들이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 혹은 전문적인 직업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학교교육과의 차이점이다.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개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관심있는 지역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한 상호간의 협조적인 의사결정을 격려한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오락활동에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미래 직업과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프로그램들이 교회, 박물관, 도서관, 공원, 경찰서, 그리고 스포츠 리그 등을 포함하여 공격 혹은 사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년/소녀 연맹(The National Boy/Girl Scout)과 캠프 파이어 소년소녀연맹(Camp Fire Boys and Girls), YWCA/YMCA 등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일상생활 실천훈련 및 자신감 등의 지도력 개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4-H 청소년개발 프로그램들은 매우 철저하게 고안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며, 영양, 항공우주, 개인관리, 컴퓨터, 그리고 HIV-AIDS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와 영역들로 구분되어 있다.

한때 미국의 농업후계인력 육성 사업은 그 당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prevention)하고, 다가올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Preparation)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간형성(positive human development) 및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추진방향의 핵심개념은 청소년과 성 인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의사결정, 계획,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청소년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존중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개발에 관한 새로운 사고의 한 단면으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경영이론의 몇몇 핵심적인 개념에도 반영될 수 있다. 청소년과 성인 상호간의 파트너십 접근방식은 연령에 근거한 위계사회를 탈피하여 청소년들이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치 새로운 관리기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동등하게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은 전망(vision), 임무(mission), 그리고 실천(practice)을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1) 문제 행동의 원인들을 밝혀내고 청소년들을 위하여 재능, 자신감, 특성, 연관성, 그리고 기여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2) 청소년들의 삶의 전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간이 성장하는 동안 자신이 속한 가족,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사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형성되어 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를 그들의 전체적인 삶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 개발에 대한 서로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지역사회

회의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시민활동에서 성인들과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

4)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학습, 경제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4H회원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들은 모든 직원들과 프로그램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적, 온화함, 다양성,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존중, 활력있는 성장과 변화 등이 격려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그들 삶의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파악하고 실천적인 가치를 연계시켜야 한다. 모든 직원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들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찾고 나아가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과 치유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4H클럽 육성기관들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고 철저한 관찰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수립하여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육성 담당자들이 폭넓은 시각으로 회원들의 자산가치(assets)와 현재 혹은 미래 자원(resources)의 시각에서 각각의 독특한 상황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해결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은 장기적이며 확실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관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학습과정, 발전능력배양, 성취결과를 반영하는 기회창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H육성 기관을 포함하여 청소년개발기관의 미래 가치는 기관들 각자의 자원과 청소년 고객에 의해서 보다는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면서 기관들 간의 협력, 긴밀한 연계, 발전 가능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여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 청소년 개발사업은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고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 적극적인 청소년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유용한 지식, 정보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개인간 혹은 기관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증진시킨다.

3) 문화, 정체성, 종교, 그리고 사고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폭 넓은 시각을 갖도록 한다.

4)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활동에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5) 4H육성 및 지원 기관들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4H클럽의 지도자들이 혁신적인 사고, 숙달된 칭취자, 그리고 가치있는 파트너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4H클럽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시민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내부 혹은 외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참여를 통하여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해결 전략을 모색할 수 있으며, 또한 성인들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청소년 개발의 목표와 청소년 및 성인들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행동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4H클럽 활동에 대한 논의 중의 하나는 단순히 회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건전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른들과 함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청소년개발 사업들이 종종 교육적인 접근보다는

그들의 감각적인 흥미를 자극시키는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사(event)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부모들 입장에서 지역사회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사회가 4H회원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젊은이들이 알고 있어야 할 문제점들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며, 나아가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도자 혹은 실천가들은 4H회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회원들과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청소년들과의 관계 지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상호존중과 적극적인 참여를 제의하는데 있으며,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일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4H육성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 주인 의식, 성취감, 그리고 봉사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4H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회원들에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삶의 기회들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첫째로는 4H회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 농업관련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다. 모든 젊은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요구되는 재원을 마련하

여,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학습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는 농촌지역이 바람직한 삶의 거주공간으로서 다각적인 토대를 확립하여, 4-H회원들이 화목한 가정유지와 사회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젊은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해야 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모범적인 보호자로서, 그리고 친척들 및 동료들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과 역동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그들로부터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4-H회원들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거나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지킴이, 특산품에 대한 마케팅, 다양한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행사 참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시절에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와 과제활동 이수와 같은 학생 4-H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는데 필요시 되는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고, 학교 밖에서의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그리고 기초적인 생활기술들을 획득하여 생산적인 인간이 되는 학습을 해야 한다.

VI. 참고 문헌

1. 김철규, 1999, 현대 미국 농업 구조의 특징과 변화의 동학, 농촌사회 9집.
2. 농촌진흥청, 2000, 농업기술센터 경영평가모델 및 인센티브제도 개발, 대한경제연구원.

3.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2001, 4-H이념 실천 프로그램 총론, 농촌진흥청·한국4-H본부.
4. 오해섭, 2001, 미국 청소년 개발사업의 역사적인 변천과정 및 새로운 페러다임,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8권 제1호.
5. 이용환 외, 1997, 농업교육학개론, 서울대출판부.
6. 최민호, 1987, 농촌청소년지도론, 서울대학교출판부.
7. Etling A. 1996, Guidelines for Change, Journal of Extension Vol. 34. No. 6.
8. Harrman & Daugherty, 1992, Staffing Extension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xtension, Vol. 30, No. 4.
<http://www.rurdev.usda.gov/>
<http://ag.udel.edu/ncc/4h-nUSA.html>
9. Lippert, M. Robert, 1995, Applying Total Quality Management in Cooperative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Vol. 33, No. 3.
10. Miller, B. M. 2001, The Promise of After-school Programs, The Journal of Educational Leadership, Vol. 58, No. 7.
<http://www.ascd.org/readingroom/edlead/0104/miller.html>.
11. Petrzalka, 1999, Extension's Portfolio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xtension, Vol. 37, No 6.
12. Schutjer, Wayne A. 1991, Rural Development and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Vol. 29, No. 1.
13. Seevers et al., 1997, Education Through Cooperative Extension, Delmar Publishers.
14. Walker, J. 1988, Youth Development Education: Supports and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Center for 4-H Youth Development, University of Minnesota.

(2002년 4월 8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